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0월8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10월8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관을 이룬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다고, 공장이 아니라 수림화, 원림화, 공원화가 실현된 휴양소같다고, 로동계급의 문화가 활짝 꽃핀 일터라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 문화회관, 전자도서관, 재단직장, 완성직장, 제품진렬실, 체육관, 은정원, 구내식당, 정양소, 로동자합숙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8일공장을 우리 나라 산업시설을 당당히 대표할수 있는 공장, 지식경제시대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공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으로 전변시키자고 하였는데 건설자들이 당중앙의 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된 설계의 요구대로 모든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웠을뿐아니라 흙잡을데가 없이 내외부시공을 잘함으로써 우리 나라 산업건설에서 새로운 도약이 일어났다고 기뻐하시였다.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



게 구축하고 최첨단설비들도 그뿐하게 갖추어놓았으며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도입한 결과 기업소가 정보화, 수자화된 공장, 에너גיע절약형공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현대적인 문화회관과 체육관,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들, 호텔같은 로동자합숙 등도 손색없이 건설하였으며 공장의 얼굴이 살아나게 야외휴식터들과 운동시설들도 특색있게 꾸렸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0월8일 공장은 부강조국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공장건설을 통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인들의 투쟁모습에서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해 심장으로 절감했다는 공장일군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있는 인민군대에 일감을 맡길 재미가 있다고, 인민군대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또 한번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대를 선도하는 인민군대가 이런 희한한 광경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면 사회주의조국은 나날이 달라질것이며 인민들은 날로 번모되고 흥해가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공지와 자부심,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8일공장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전무결하게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593대련합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제462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감사사를 주시였으며 근로자들에게 높은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할것을 친히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상화회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9월 3일 만수대에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녀성3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의 흥취나는 민요로 이어지며 관람자들의 가슴을 한없는 격정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녀성3중창 《그리움의 하얀 쪽배》,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가 울리자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사랑과 정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녀성중창 《만경대혁명학원교가》, 녀

성독창 《그날의 15분》, 경음악련곡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조국찬가》, 녀성독창과 방창 《고백》,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와 선물로 승화된 음악회무대에 녀성독창과 방창 《철령아래 사파바다》가 울려 퍼지였다.

음악회는 녀성중창 《근위부대자랑가》, 《승리는 대를 이어》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

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음악회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공을 따라배워 예술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드높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체적 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공화국은 통일강성국가로 무궁번영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시고 통성과 번영을 이룩하여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설

우리 겨레는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에 넘쳐 공화국창건 6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건국의 그날에 제정된 첫 국호와 국장, 국기를 장장 60여성상 빛내이며 자주의 선군으로 강위력한 국가로서의 존엄을 떨쳐온것은 공화국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이 있고 강성번영이 있다.

돌이켜보면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지만 어제날의 식민지약소국이 오늘날은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키돋움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떨치고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거대한 전변이고 자랑찬 승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에 우리 조국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눈부신 전변을 이룩하였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헌신의 고귀한 결정체

이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으로 하여 공화국의 력사가 자랑스럽고 긍지높은것이다.

공화국의 통성번영의 력사는 투철한 자주의 신념으로 전진하며 승리해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하신 애국신조였고 국가정치방향이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자기 활동의 전행정에서 모든 문제를 언제나 인민의 리익, 나라의 구제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였고 그 어떤 외세의 강권과 전횡앞에서도 자기의 자주적대를 전결히 고수하였다.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리념으로 세우고 전진하는 공화국을 그 어떤 힘으로도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가 확증하고있다.

공화국의 통성번영의 력사는 독창적인 선군의 길을 따라 불패의 존엄을 떨친 창조와 번영의 력사이다.

위대한 선군사상, 선군령도의 창시자이시며 거장이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공화국을 이끄시른 전기간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선군으로 공화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한 국가를 요람기에 앉살하려고 달려든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고 년대와 년대를 이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총로성없는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공화국의 력사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빛나게 구현하여온 인민사랑의 력사이다. 이민위천은 공화국의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다. 인민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명제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공화국을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

며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복리향상을 높이는것을 국사의 첫자리에 놓고 활동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만드시였다. 무상치로제와 무로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들이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국가정치치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로동당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되고 정권도 인민을 위해 종사하는 복무자로 강화발전되고 군대도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자, 창조자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고있다. 공화국을 백년천년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 인민이 만복을 향유하는 리상국으로 길이 빛내이도록 하시려는것은 원수님의 뜻이고 사명하는 애국심과 나라의 재건지명과 원대한 리상이 인민을 광활한 미래로 향도하고있으며 그이의 애국헌신과 정력적인 령

도에 의하여 공화국에는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마련되고있다. 온 나라에 건설의 대진성기가 펼쳐지고 조국강산이 새롭게 변모되고있으며 사람들을 감동케하는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있다. 그이의 천리혜안의 선과 미에 대한 회상으로 가슴부풀게 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은 나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하는 거창하고 숭고한 애국위업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강성국가건설은 민족성원모두가 애국자가 되는데 최후승리의 길이 있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의 살붙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심과 나라의 재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땀을 흘리고 한치의 땅을 위해 한몸도 기꺼이 바치는 헌신과 투신으로 민

족이 알고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다. 유구한 세월 단일한 조선민족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근 70년세월 복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는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민족분열은 곧 애국이다.

은 민족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통성번영의 길을 열어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은 민족은 조국통일성업실현에서 투철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와 야합한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매국배족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집권세력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온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은 겨레는 북남선인들을 귀중히 여기며 철저히 고수리행하여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단합과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삼천리강토우에 반드시 통일강성국가를 세우고 자자손손 무궁번영할것이다.